

특별기획

김제시, 쌀적정생산 대책 회의

김제시는 지난해 풍작과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한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쌀 적정생산 추진단은 지난 3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총괄단장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농협중앙회 김제시농정지원단, 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 들녘경영체김제시협의회 구성된 정책지원반과 기술지원반인 2개반 5개 기관·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제시 쌀 적정 생산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과 기관·단체별 역할 이행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한석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곡 생산단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쌀 소비는 다양한 먹거리 증가 등으로 감소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어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질소 표준 시비량 준수(10a당 9kg), 표준과중량 준수(말식재배 억제), 고품질벼 재배(다수성 저항성)를 하도록 쌀 가공업을 육성하여 다양한 쌀 식품생산과 비 대체 작목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산면주민자치위원회

향기로운 마을길 만들기 나서

김제시 백산면(이석 면장), 백산면주민자치위원회(김창수 위원장), 백산행복나눔회(이기홍 회장), 길보존종합사회복지관(권영세 관장)은 지난 28일, "향기로운 마을길"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그간 사업참여 희망마을 신청을 받아 원부, 소음방, 돌제, 원상 하진 중조마을 등 최종 6개 마을이 선정된 "향기로운 마을길" 만들기 사업은 행정과 지역주민,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힘을 합쳐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김제시(공원복지과, 환경과, 도시재생과)에서는 꽃밭조성에 필요한 펜지, 금잔화 등 700포트를 비롯, 쓰레기 수거와 45톤 분량의 흙을 지원하여 꽃밭 조성을 도와 눈길을 끌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해상풍력 부안위도초자매결연

한국해상풍력(사장 이승연)이 지난 28일 부안 위도초등학교(교장 장병수)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이날 한국 해상풍력은 신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에게 전기에너지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이번 협약체결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전기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소중함을 갖도록 강연을 시행하며, 학생들이 신 재생에너지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해상풍력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위도초등학교와 한국 해상풍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위너3D 골프 아카데미 성금 기탁

(주)위너3D 골프 아카데미(대표 이남철)가 지난 28일 성금 200만원과 물품(벽걸이 에어컨 및 온풍히터) 2점을 기탁했다.

이남철 대표는 "지난 28일 고창컨트리클럽에서 18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한중교류 자신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참가자들의 뜻을 모아 성금과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탁 성금은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대상자에 전달하고 물품은 열악한 아동이용시설을 선정,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관광발전위원회를 열어 선호도 조사에서 도출된 명소 20개소와 기타 명소에 대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9개소의 명소를 재선정했다.

대표관광지 정읍9경 재선정

기존 9경보다 구체성과 대표자원으로서의 가치·발전성 고려

정읍시가 대표관광지인 '정읍9경(井邑九景)'을 재선정했다.

재선정된 명소는 ▲1경 국립공원 내장산 단풍터널 ▲2경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경 동화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4경 무성서원과 삼촌공원 ▲5경 백제가요 정읍시문화공원 ▲6경 피향정 연꽃 ▲7경 정읍천 벚꽃길 ▲8경 전설의 생화커리 ▲9경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다.

시는 재선정과 관련 "기존 9경은 장소 위주로 광범위한 명칭을 부여했으나 재선정에서는 구체성과 대표자원으로서의 가치, 향후 발전성을 담아 명칭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선정을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민 및 기관·단체로부터 정읍 대표 명소를 추천 받은 후 시민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추천명소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시는 지난 27일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를 열어 선호도 조사에서 도출된 명소 20개소와 기타 명소에 대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9개소의 명소를 재선정했다.

시는 "정읍9경을 재선정한 만큼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 및 시설 안내판 등을 조속히 정비하고, 9경 시터투어 운영과 전국관광사진전, 인문학 강좌

와 등에 활용해 정읍의 대표관광지로서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7년 ▲내장산 ▲옥정호 ▲동화농민혁명기념관 ▲정읍사공원 ▲정읍천 ▲김동수가족 ▲전봉준공원 ▲백정기 의사 기념관 ▲충렬사공원을 정읍9경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07년 9경 선정 이후 새롭게 조성되고,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명소 등이 정읍9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재선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지목이 대(垵)인 토지 대상

김제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가운데 공부상 지목이 대(垵)인 토지가 청구대상이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이 보상대상으로 이주대책이나 영업손실 보상비 및 잔여 보상은 청구대상이 아니다.

매수청구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서가 접수되면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일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사항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수결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약 등 불편 해

소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산정되어 지급된다.

김제시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2필지 8,594㎡를 매수했으며, 올해의 경우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매수청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형대 서해로터리클럽 회장 대상

봉사정신 높이샤... 국제로터리 3670지구 87개클럽 중

국제로터리 3670지구(총재 윤운호) 45년차 지구대회에서 부안 서해로터리클럽 김형대 회장(군의원·사진)이 초야의 봉사정신을 높게 드높였다



기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높게 평가되어 대상을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대 부안 서해로터리 회장은 "대상을 수상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단합으로 이뤄낸 큰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안 지역 사회 봉사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안 서해로터리클럽은 "초야의 봉사로 세상에 선물이 되자!"라는 테마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무료 의료봉사,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사업, 농가일손돕기, 협약 시설방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타 봉사 단체들의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국제로터리 3670지구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 군의회 의원인 김형대 부안 서해로터리클럽 회장은 평소 회원들의 단합과 각종 봉사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기르고 가꾼 파초일엽과 백두산 만병초 등 흔히 볼 수 없는 희귀식물을 비롯 모두 500여점의 자생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읍 자생화 전시회 5월 5일부터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정읍 자생화 전시회가 열린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정읍시2청사에서 '전국제일 자생화의 고향 정읍'을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전시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기르고 가꾼 파초일엽과 백두산 만병초 등 흔히 볼 수 없는 희귀식물을 비롯 모두 500여점의 자생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5일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 6일 자생화교실, 7일 보고 먹고 즐기고 먹는 힐링원예를 주제로 한 원예치료세미나가 진행된다.

또 행사기간 토마토와 딸기, 참چه소 수확하기와 참چه소 화분에 심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월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와의 MOU체결에 따라 이날 구례군에서 주최한 제15회 대한민국 압화대전 수상작도 감상할 수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정읍자생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품위와 산비늘 곤달비 등 자생화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정읍이 자생화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Gangsanmyeongju)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duct images. The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껏 솔로 빚었습니다.' It also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